



▲ 의정부시 신곡2동 사랑의 릴레이 배턴 잇기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은 범시민 모금 운동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생단체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나눔 참여를 다짐하고, 모든 단계 한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김승근 기자

## 文대통령, 5일께 총리 지명할 듯... 김진표 확실시

법무장관 추미에 유력... 경제·교육·외교장관 교체설  
윤건영·박형철發 靑개편 촉각... 김현미 검증서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께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실시된다. 1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월 5일쯤 이 총리 후임으로 김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총리의 장기근속 및 내년 4월 총선에 따른 인사 교체 검토 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차례로 부의돼 연재된 본회의 상정·표결 요건을 갖추게 된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법을 본회의로 넘김)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부의된다. 이후엔 문화상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상정·표결이 가능하다. 그간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의원과 진 의원은 '경제'와 '탕평' 방면에 각각 특화돼 있는 인물들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카드로 언급됐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을 지낸 경제통(通)으로 불린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 지명과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에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 의원 측은 뉴스1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총리·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했을 때 전략상 '원포인트' 개각은 다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의 총선 출마설, 청와대의 검찰무마·하명수사 연루에 따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사의설이 돌고 있다. 청와대는 윤 실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기획실과 상황실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 김봉석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폭이 넓어져 실장급 인사의 교체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무총리 및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청와대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냈으며 총리에 대한 검증동의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박귀성 기자

##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29일 의총 열어 결정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개시 가능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안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08명인 한국당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 종료,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박귀성 기자

## '혼재된 신호' 던진 이주열... '속도조절'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금리인하 대응력은 아직 남아있다"며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내년 중반 우리나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기준금

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이 총재의 의중이 드러난 혼재된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앞으로 거시 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

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내년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서면 지금까지 안 가본 길을 가게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시 오르고 있는 주택가격이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기준금리를 더 낮추면 강남 집값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동방문에서 "주택가

격은 수도권 지역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주택가격 움직임에 직접 대응해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수 기자

**청량(淸) 봉화**

**봉화군**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이 당신을 반깁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땅을 간직한 봉화...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멋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관광지,  
새로운 활력을 찾으러 봉화로 오세요!

**GREEN ENERGY**



#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 대표단, 경기도 황해청 방문

## 황해청-카토비체 경제특구 간 투자유치 협력방안 논의 포승(BIX)지구 현장 방문... 폴란드 특구 간 협력·협약

폴란드 슬롱스크 주 코이치에흐 카우자 부지사와 카토비체 경제특구 야누쉬 미하웨크 회장 등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 대표단 13명이 지난 29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다.

이날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카토비체 경제특구청은 각자의 개발사업,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투자유치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카토비체 경제특구는 자동차를 주력 산업으로 하며, 유럽 내 최우수 Free zone으로 지정되는 등 폴란드에

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특구로 꼽힌다. 한국의 경제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황해청에 협력을 제안했으며, 카토비체 경제특구 대표단의 방한 협의를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자동차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황해청을 추천해 방문하게 됐다.

이날 대표단은 포승(BIX)지구 현장 방문해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제안했다.

총 204만9,500여㎡에 달하는 포승 지구는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자동차·화학·전자·기계 산업시설을



지와 물류시설용지,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기반공사가 완료돼 바로 공장 및 물류단지 착공이 가능하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평택항과 인접하고 2023년 준공예정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포승IC가

연결되는 포승지구가 수출입 물류기업의 최고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포승지구 물류부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꾸준한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포승지구를 적극 홍보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수원텔타플렉스 3블록 내 복합용지 분양

### 복합 업무·지식산업센터 용지 활용

경기 수원시가 수원텔타플렉스 3블록 내 복합용지 6필지를 분양한다.

분양하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 용도와 지원시설 용도가 결합된 용지로 복합 업무·지식산업센터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

'복합 업무'는 수도권 내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 업종은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이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내 단체나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항에 규정

된 '지식산업'을 비롯한 20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수원텔타플렉스'를 검색해 분양공고를 볼 수 있다.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12월 16~18일이다. 수원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텔타플렉스에 건설된 업체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예타 면제'

국비 676억 원이 투입되는 전남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포함했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시설 처리용량을 1일 13.5만㎡에서 16.5만㎡로 3만㎡ 늘리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22년 하반기 시설을 시험가동하고, 2023년 초 정식 운영한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내에 있는 GS칼텍스 등 16개 기업이 2025년까지

9조 5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산업·증설을 추진함에 따라 1일 폐수 발생량이 3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권오봉 여수시장은 수차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시급성을 설명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예타 면

국비 676억 원 투입 3만㎡/일 증설 16개 기업 9조 5천억 공장 신설 전망

제로 산단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폐수처리시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산단 공장·증설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비 6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여수/이남출 기자

## 용인시, 주택연금 가입 주택 대학생 임대 협약

### 어르신엔 부수입·청년엔 방 제공 하우스쉐어링 연계·임대차계약 지원

경기 용인시는 1일 시장실에서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일부 공간을 관내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 위한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 및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말 기준 용인시내 주택연금 가입자는 2817명이다.

시는 주택연금과 연계한 주거공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연계해주고 임대차계약을 도우며, 대상 주택의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거공유 대상 주택을 조사해 어르신의 실제 거주 여부, 방의 상태, 주변환경,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 광명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토지감정평가금액을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토지평가협의회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직위원 5명, 전문가 6명, 토지소유자 9명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평가금액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 토지평가금액에 대한 심의가 아닌 전반적인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기준 적정성을 심의했다.

토지감정평가금액은 2개의 평가기관에서 산출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평가금액은 환지계획(안)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가대상토지는 정리 전 토지 1,252필지, 정리 후 토지 457필지이며, 정리 전·후 토지의 용도지역별, 지목별 평균단가와 전체 토지가격의 도면과 조서로 심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결정된 토지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해 환지계획(안)을 수립하여 12월 초에 환지계획(안)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6월까지 환지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세대차를 뛰어넘는 하우스쉐어링으로 주택연금이 가입한 어르신들은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대학생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셋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시가 주거공유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은 명지대 등 관내 9개 대학의 시설 부족으로 기숙사 지원을 신청한 대학생의 31%(6900명)가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언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층 주거복지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내년부터 관내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공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용인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교통여건 등의 정보를 대학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입주 대학생이 어르신의 가사를 돕거나 일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세대 간 동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예전엔 아주 흔했던 주거공유라는 우리 사회의 좋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오늘 협약을 체결했다"며 "어르신 가구는 적지만 임대소득을 얻고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선 비싼 도심지 임대료나 고령층 고립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하우스쉐어링 또는 룸쉐어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남시현 기자

## 안병용 회장, 지방분권 조속한 통과 촉구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 모색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은 최근 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협의기구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19명의 공동회장이 임원단을 구성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동회장단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공동 회장이 참석했으며 △ '역협의회의와 소통·협력 강화' 8개의 보고사항 △ '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입법 대응 관련 보고' 4개의 주요 현안사업 △ '군구 자치분권 전략과 과제 연구용역 결과 보고' 4개의 일반 현안사업 △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 4개 심의 안건 등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4개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

었다.

안병용 회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부활되고 민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와 주민 참여 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재정과 권한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50%를 조금 웃도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촉구문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총 10건의 지방 분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있으며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지방회의의 기능 및 권한 강화 등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김영진 기자

## 화성, 인·허가 민원처리 활성화

경기 화성시는 1일 향남종합경기타운 인터부실에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인·허가 민원처리 행정효율성 증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창성 화성축량협회 회장 및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창성 화성축량협회 회장은 협회의 민원과 불만사항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은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민원처리기간 준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영진 기자



# 이재명, SK 하이닉스 충칭 공장 시찰... 현지 기업 의견 청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 위한 기업 의견 청취 인력현황과 인건비 수준, 임금상승률 등 노동여건 관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중국 충칭 일대를 순방하고 있는 경기도대표단은 28일 SK하이닉스 충칭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추진과제 발굴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등을

SK 충칭공장 측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공장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직접 고용만 2만여명, 협력업체를 포함할 경우 3만명 이상

###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 지역사회 상생발전 높은 평가

### 이재명, “위기는 반드시 기회 동반

### 숨어있는 기회 활용국제경쟁력 강화해야”

위한 기업 의견을 들었다. 경기도대표단은 박진규 SK 충칭공장 법인장의 안내를 받아 SK 하이닉스 충칭공장 홍보관, 제1공장, 제2공장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현지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K 충칭공장 측은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회로판 위에 육안 상 가루로 보일만큼 작은 전자정보전달 소자인 ‘솔더볼’을 최대 500개까지 장착,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력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품, 현지 사업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지 인력현황과 인건비 수준, 임금상승률 등 현지의 노동여건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 지사는 공장 측이 젊은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각종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약 1시간 가량 공장을 둘러본 후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라며 “국내 반도체 시장이 갖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안에 숨어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도내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산업현장 시찰 결과를 종합해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추진과제 발굴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하이닉스 충칭공장은 지난 2013년 5월 SK하이닉스와 중국 충칭시가 투자협의를 체결한 이후 같은 해 7월 설립에 착수, 1년 후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자본금 4억달러, 총 면적 28만3,500㎡ 규모로 SK이전 및 청주공장, 중국 현지의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등에서 부품을 제공받아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한 뒤 테스트까지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직원 50여명이 총 2,500여명의 중국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충칭시 유관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속에 성장을 거듭, ‘지난 2017년 충칭시 중점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오거돈 시장 “생태관광문화어우러진 미래 첨단산업도시”

부산시는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네 번째 ‘부산대개조 정책투어’를 오는 ‘서부산권장 애인스포츠펠드’에서 진행했다.

먼저, 오거돈 시장은 본 행사에 앞선 오후 3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기간 교통, 안전사고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단~녹산선 건설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사하를 사상과 더불어 서부산권 교통의 허브지역으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어 3시 25분경에는 사하구 제2청사 건립현장을 방문해 사하구 제2청사 건립 현황,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신평역 일원이 사하구 제2청사, 서부산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복합화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며, “사하구 주민을 위해서서 부산의료원 건립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속도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거돈 시장은 4시부터 서부산권장 애인스포츠펠드에서 김태석 구청장, 전원석 사하구의회 의장을 비롯, 250여 명의 사하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산대개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편하고 격식 없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은 스마트·관광·마이스 산업의 중심인 동부산과 생산, 물류산업의 중심인 서부산이 양 날개를 흔들면서 발전해 왔으나, 몸통인 원도심이 쇠약해 양 날개의 힘이 떨어지고, 한쪽으로는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동부산과 서부산의 눈부신 발전도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면서 “원도심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부산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로 ‘부산대개조’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사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자원과 낙동강 유역의 역사, 문화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이 가깝고 부산 전역으로 뻗어가는 도로망이 발달해 서부산 관문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사하구 대개조의 핵심은 △ 신평·장림 첨단산업단지 조성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및 하단~녹산선 건설 △ 을숙도개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 △ 다대포 다기능 어항 개발 △ 에멘유원지 관광자원화 △ 서부산의료원 건립 △ 국립자연유산원 유치 △ 산림 복지단지 조성 등 사하구를 첨단산업과 생태 특화 시설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거돈 시장은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은 교통망을 활용한 부산의 관문이다. 서부산을 아시아의 물류 중심도시로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이기 위해 지

난 4월 15일 신(新)낙동강시대 서부산대개조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방향은 성장, 삶의 질, 그리고 생태”라면서 “사하구에는 성장을 위한 신평·장림첨단산업단지 조성, 삶의 질을 위한 서부산의료원 건립, 생태를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유치 등 1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80년대 우리나라 산업 성장을 이끌어 온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혁신은 주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다. 30년 가까이 되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업종을 유치하여 도심형 첨단스마트산업단지로 만들겠다. 개방형체육관,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등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시장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정상회의를 통해 부산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면서 “이제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산항 복합 통합개발 등에 집중하여 부산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으로, 시가 추진하는 여적 사업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하구 주민들은 △ 다대포 관광벨트 조성 △ 안골 새 공원 조성 △ 감천 유희아파트 앞 교통체계 개선 △ 우경 하바빌~하단선당 간 도로 확장 △ 괴정1동 구형 콘크리트 하수처리 교체 △ 구평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2일 연도구를 시작으로,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중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동구, 해운대구, 사상구, 서구를 방문해 ‘부산대개조 정책투어’를 진행했다. 나머지 구·군에 대해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연결’, ‘혁신’, ‘균형’의 ‘부산대개조’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최민식 기자



## 경북 화장품 공동브랜드 클루엔코, 이번엔 태국시장 공략

### 아세안 최대 화장품 시장 태국 방콕에 매장 개소 클루엔코 30개 회원사, 145개 제품 전시·판매 해 베트남 호치민, 다낭에 이어 또한번 해외시장 개척

경북 화장품 공동브랜드 클루엔코(CLEWENCO)가 아세안 화장품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태국 방콕 중심상가에 클루엔코 매장을 개소하고, 전우현 경제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태국 C4글로벌 화장품 클루엔코 운영할 현지 화장품 전문기업 헤이(Hej) 대표 등 200여 명이 모여 클루엔코 진흥의 성공 기원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 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카페리이드를 시작으로 태국 글로벌 화장품 기업 C4글로벌 올레(OLE) 회장의 환영사, 전우현 경제부지사 등 한국측 내빈 축사, 클루엔코 운영을 위한 협약식, 티오프 커팅, 연예인 축하공연, 클루엔코 매장 투어 및 샘플링 마케팅 등으로 이어졌으며, 현지인의 많은 발길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오픈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에 개소되는 클루엔코 매장은 화장품 전문 편집숍 HEJ Street Beauty매장 내에 자리 했으며, 46㎡ 규모의 건물 2층 전체를 클루엔코 전용 공간으로 구성해 클루엔코 30개 회원사, 145개 제품을 전시·판매 하게 된다.

이로써 클루엔코는 2017년 11월 베트남 호치민, 다낭 매장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중국 인환 매장에 이어 2년 만에 4번째 해외 매장을 개소하며, 빠르게 판로

를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새롭게 개소하는 매장은 대형 쇼핑몰과 호텔, 음식점, 야시장이 들어선 방콕 최대의 중심상가인 싹플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현지인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구매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으로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 중산층 확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보이고 있어 (대)한국 화장품 수입이 최근 5년간(2013~2017) 32.8%의 증가율을 보이고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클루엔코(CLEWENCO)는 경상북도가 지역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을 국내외에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해 개발된 화장품 전문 편집숍 브랜드로 ‘아름다움의 리더(CLEW(리더) + and + Cosmetic(화장품))’를 상징하는 의미로 2017년 상표개발 되었으며, 54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경북도는 클루엔코 기업 지원을 위해 화장품 제품개발과 품질인증, 마케팅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 개소되는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화장품 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K뷰티 산업 아시아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클루엔코 방콕 매장은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거점이자 인도차이나 중심인 태국에 해외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서비스업종과 연계성이 좋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화장품 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 베트남에 중소기업 상품 홍보관 구축



## 신남방 국가에 중앙·지방정부 최대 규모 우수상품 홍보 O2O(온·오프라인 연계) 형식 역지구 적극 활성화 나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하노이에 '경기도 우수상품 홍보관 1호점'을 개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맞추어 올 연말까지 베트남 전지역에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 최대 규모로 우수상품 홍보관 60곳을 오픈하여 2020년 까지 100개의 경기도 중소기업의 신남방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상무국이 운영하는 한-베

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1호점 개점 행사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홍석민 미래경영실장, 베트남 산업무역부 누인홍지영 국장, 베트남 무역진흥청 누인티홍반 국장,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투롱국바오 국장, 베트남 전 관세청장 누인두이남, 한-베 디자인센터 최성원 센터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하노이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베트남에 단독 안테나숍 구축 및 라

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이 위치한 메콩강 경제권의 신남방 국가에 전국 최대의 우수상품 홍보관을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관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인 쇼피(shopee.com)에 '온라인 경기도 우수상품 홍보관'을 구축함으로써 O2O(온·오프라인 연계) 형식의 역지구(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남방 및 아세안 국가에서는 이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자리 잡고 있으

며,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이번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 및 홍보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기간에 신남방 진출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에서 경기도 우수상품 홍보관 1호점을 오픈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함께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 국가 및 아세안 시장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누인홍지영 국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하노이를 시작으로 베트남 전역에 알리는데 총력을 다해 협력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의 성공적인 베트남 현지화를 위해 산업무역부 및 무역진흥청 소속 전문 인력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자"고 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같은날 하노이 사무소에 '베트남 중소기업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여 법률, 금융, 회계, 컨설팅, 시장조사 등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상식 전 베트남 총영사 겸 공사, 김용철 코참 부회장, 법무법인 지평의 유희호 변호사, IBK-BANK 맹선배 지점장, 베트남 상공회의소 전병석 자문관, 크루셜텍 조용원 법인장 등 내외빈 20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정부/김영근 기자

# 여주시, 민선7기 93개 공약사업 '순항' 중



## 사업면밀히점검...26개완료,67개추진 권오봉시장'공약사업시민마소중환약속'

전남 여주시는 민선 7기 권오봉 시장 공약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주시장과 31개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약 이행 실적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여주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총괄 보고를 통해 현재 민선7기 공약사업 93개 중 26개를 마무리했고, 64개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3개 사업은 국비 확보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7기 여주시장 공약사업은 △ 시민공감 감동시장 9건 △ 균형 있는 상생경제 24건 △ 사람중심 나눔복지 13건 △ 품격있는 문화관광 27건 △ 살기좋은 정주환경

20건으로 총 5개 분야 93건이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낭만포차 이전, 음식·숙박 업소 물가정보 앱 구축, 공영 주차장 무료이용 시간 확대, 도서지역 어르신 목욕탕 이용권 지급이 대표적이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시립박물관 건립, 섬 박람회 개최, 화대-백야 연도교 건설, 이순신 스토리텔링 체험관광 모델 개발 등이 있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보고회에서 "공약사업은 여주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국비와 민간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트도시발전본부 주관한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이남출 기자

# 안산시, 대한민국 블로거어워드 공공부문 대상

## 블로그 활용 온라인 홍보 경쟁력 확보 소비자 공감 소통 활동 두각 나타내

경기 안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블로거 어워드'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9회를 맞은 대한민국 블로거 어워드는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경쟁력 확보와 개선 동기를 부여하고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와 공감·소통하는 활동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

시민들과 우수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안산시는 블로그 관련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 블로거어워드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심사 과정에는 10명 내외의 전문가 그룹이 디자인 및 UI, 마케팅,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부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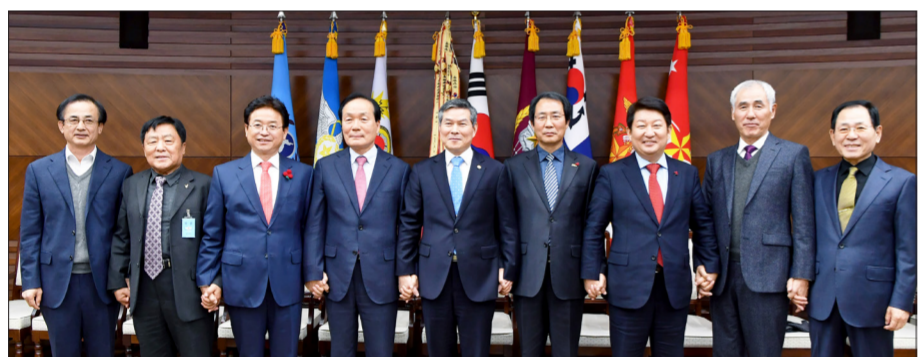
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블로그 활용이 탁월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안산시는 4기 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을 비롯해 25개 동 소식을 일선에서 전하고 있는 안산시 생생마을기자단, 참신한 시각으로 시의 정책·관광 등을 홍보하고 있는 안산시 생생드림어 학생기자단의 활발한 취재 활동을 통해 블로그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2011년 1월 개설된 안산시 공식 블로그는 현재 누적 방문자수 600만 명을 넘었으며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는 시민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한다"며 "내년에도 '2020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 경북도, '제5회 대구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 반영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의결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총장, 대구·군위·의성 단체장 및 민간인추천위원 등 12명이 함께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의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하여,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오늘 의결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안이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후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한다.

그리고 '이전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 주민투표 찬성률(1/2)+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후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 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오늘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할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함으로써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후보지역 일치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이항진 여주시장 "시장님 질문있어요!"

## 세종초 참관·학생 질의답변 시간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이 세종초등학교 공개수업 강단에 섰다.

이 시장은 최근 세종초등학교(교장 박향옥) 4학년 라온반에서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수업은 '민주시민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으로 지난 10월부지 11월에 걸쳐 여주시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우리 고장 여주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우리 고장 사람들을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직접 조사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발표 등 어른들 못지않은 실력과 진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과제 발표 후 공개수업에 참관한 이 시장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시장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시장이 된 이유, 시장으로서 보람될 때, 어린이 절 굿 등 여러 질문에 이항진 시장은 학생들에게 "나 다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해 항상 당당해 질 것을 당부했다. 여주/남시현 기자

#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통합분석센터 구축

## 급변하는 반도체산업 패러다임 적극 대응 정밀분석으로 고객맞는 제품 공급 기여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전문 기업 SK머티리얼즈(대표이사 장용호, www.sk-materials.com)가 경북 영주시 분사에 통합분석센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소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공정이 고집적화, 초미세화로 진화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 된 반도체 소재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시장 흐름에 부합하고자 이번 통합분석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8월 산학연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IT 소재 솔루션 플랫폼'을 출범했던 SK머티리얼즈는 통합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소재 분석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통합분석센터에서는 SK머티리얼즈의 주력 제품인 삼불화질소(NF3)\*, 육불화탄소(WH6)\* 등을 비롯한 특수가스는 물론, 반도체 박막증착 공정\*에 쓰이는 전구체(Precursor)\*와 반도체 공정용 웨트 케미칼(Wet Chemical)\*에 대한 정밀 분석을 수행, 고객사 니즈에 맞는 제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분석과학회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소재에 대한 분석 방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머티리얼즈는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C 등 그룹 내 화학 산업 계열사와 협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재 분석 역량을 고도화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SK머티리얼즈는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소재 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오픈랩(Open Lab) 운영을 통해 SK머티리얼즈가 보유한 분석설비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정승초 기자

# 경기, 작은도서관 시군 정책평가

경기도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와 시·군 정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작은도서관 시·군 정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와 군포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에는 화성시·광명시·양평군·남양주시, 장려상은 부천시·의왕시가 선정됐다. 수상한 시군에는 기관 표창이, 담당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12월 중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시군별 도서관수를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평가내용은 작은도서관 정책 개별 작은도서관 평가결과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도정 시책 참여도 등 5개 지표, 13개 세부 항목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국 작은도서관의 약 25%인 1,683개가 운영 중이며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독서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호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도민에게 밀착된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개발하고 평가에 반영해 우수 시·군을 격려하고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김희영 의원, 지역화폐 국도비 감소 대비 향후 대책 절실 지적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확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절실



경기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최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업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희영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의 지역화폐 발행을 점진 늘리는 계획에 대해 향후 지역화폐의 국도비 지원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학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하지 않고 부동산 임금지리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지원과에는 창업지원센터의 보조금 등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물류센터 조성 시 일자리정책과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을 지적하고 향후 세심히 검토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행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정산 내역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집행 및 정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려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환 셔틀버스 도입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물류창고 인허가 시 물류창고 면적, 고용창출효과 등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황도현마을 육성 및 홍보방안 검토할 것과 원삼면, 백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산림과, 관광과가 협업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에는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산단입지과에는 오토허브산단 입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동 의원은 전통시장 무료주차 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다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생동감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국내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곳이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고립동 국제물류

# 강석호 의원, 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근거 마련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

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광주시의회대상 시상식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광주시의회대상」 시상식을 열고, 문화예술 등 8개 분야에 대한 의회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부문 김경옥 관장(열곡박물관), △교육부문 전찬진 팀장(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체육부문 한정남 북상부지도자(광주중학교), △지역사회봉사부문 박상열 회장(대한적십자봉사회광주시 지구협의회), △지역안전부문 김학성 회장(도척생활안전협의회), △행정부문 김미희 팀장(광주시청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부문 정병목 대표(주)동성코메즈), △환경보전부문 배명선 명예환경감시원(한강유역환경청) 등 8명이다.

박현철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자의 역할을 해 온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 이영아 의원,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민원 해결 앞장서

### '광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간담회' 지역구 넘나드는 의정활동 주목 받아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를 넘나드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최근 석바대상인회사 사무실에서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CPTED, 이하 셉테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업대상지 주민과 주민협의체를 비롯해 하남시 도시계획과, 하남경찰서, 신장12동 담당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장동 안심소통센터 운영 방향 논의, △화분외자 등 시설물 관리 방안 논의, △신장 12동 LED보안등 설치 논의, △담장 및 대문 교체 논의, △질의응답 및 설문지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방법초소의 역할을 겸하는 안심소통센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과의 협의 불발로 안심소통센터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 밖에도 △범죄예방·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화분, 의자 등 관리 소홀, △낮아진 담장으로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 △교체한 대문에 물이 차 부식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상지 주민 석식현 씨는 "셉테드 실시 후 낮아진 담벼락을 통해 집 마

당으로 날아드는 담배꽂초와 쓰레기 등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후속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셉테드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야기해 오히려 각종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셉테드 사업의 폐해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먼저 대안을 제시한 후, 주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영아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를 떠나 어디서든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며 하남시 전체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남시현 기자

# 경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확정

###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결의안 발의

경북 봉화군의회 임기섭 의원은 최근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섭 의원은 결의안의 제안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전통산업이며 주요 전략안보산업임을 망각하고 정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협의조차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며 급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농산물 전분야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기섭 의원은 "정부는 농업이 우리의 전통산업이자 국가의 주요 전략 안보 산업을 깊이 인식

하고, 농업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이고 단편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며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연이은 태풍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 역시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더욱 큰 불안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더 이상 정부는 안일한 대책과 무책임한 결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농업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임기섭 의원이 발의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의회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11월 27일(수)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봉화/정승초 기자

#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여수에 '사랑의 행복 온도탑' 우뚝 '온정' 기대



### 시청 앞 광장서 제막식, 권오봉 시장 등 500여 명 참석 내년 1월 말까지 모금... 목표액 8억2800만 원 목표액

'희망2020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전남 동부권 사랑의 행복 온도탑이 여수 시청 앞 로터리 광장에 설치됐다.

전남 여수에 따르면 최근 여수 시청 현관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전남 동부권 사랑

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다고 1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노동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아내 소사이어티 회원, 한화케미칼 김형준 공장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여수 풍물보존회와

다솜 어린이집의 식전공연, 사랑의 열매 달기, 온도탑 온도 올리기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제1 E&C 김종휘 대표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여수산단협의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시 공직자 및 시의회 의원은 각각 4500만 원, 2000만 원, 2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랑의 행복 온도탑은 희망 나눔 캠페인 관련 기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달성될 때마다 온도가 1℃ 오른다.

올해 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구호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모금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한 8억 2800만 원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권오봉 시장은 "사랑의 수은주가 100도를 훌쩍 넘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오늘 제막식의 열기를 이어받아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희망2019 나눔 캠페인에서는 목표액을 114% 초과한 9억 4600여만 원이 모금됐다.

여수/이남출 기자

## 안산시, 다문화거리 건전영업 실천 캠페인

### 다방등 휴게음식점 불법행위 근절 나서 단원구, 현수막·패킷 등 기류캠페인 진행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원곡동 다문화거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다문화거리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건전영업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전날 두 번째로 열린 캠페인은 원곡동 다문화거리 내 다방 등 휴게음식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과 영업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패킷 등을 활용한 가두캠페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휴게음식점안산지부와 다방 영업주, 안산단원경찰서 그리고 베트남이주여성협의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어깨띠를 착용, 2개소 2코스로 나눠 홍보물과 전단지 배부하며 불법영업 근절 홍보와 등

참 호소에 나섰다.

특히 최근 돼지열병과 관련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및 구매 등 금지 안내문을 홍보물과 함께 배포하고 다문화거리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널리 알렸다.

또 원곡동 다방 영업주들은 음식점 업주들을 직접 만나 홍보물을 건네주며 "건전영업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영업장에 앉아서 홍보물을 받아보는 것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캠페인 참여에 만족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에 참석한 각 단체 및 영업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외국인 비율이 80%가 넘는 이 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등 기초질서 확립 뿐 아니라 다방 및 음식점 영업에 대한 시민과 영업주의 의식개선을 다문화 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돼 이 지역 업소들의 번영과 발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 많은 공공시설, 다중시설 중심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

경기 파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반 조 및 표지 부당 사용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위·

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파주시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포천시, 상습적인 체납차량 영치 단속 나서

### 세원관리과 직원 2개 단속반 편성 실시간 조회 모바일시스템 사용해

경기 포천시는 전국 시·군·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최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세원관리과 직원들을 2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건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사용해 포천시 전 지역을 단속했다.

시는 총 43대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 및 예고장 부착 등을 실시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시는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 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촉쇄를 채우거나 강제견인 뒤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규봉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국 합동 영치 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영근 기자

## 용인, 택시 신규 면허자 면허증 수여



경기 용인시는 최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하반기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63명에게 면허증을 수여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대상자는 가군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다군 4명, 라군 2명, 마군 3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6일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결격사유 조항과 심사를 거쳐 최종 면허대상자 63명을 선정했다.

이날 면허로 용인시의 개인택시는 총 1586대가 됐다. 또 12월중 공급 예정인 24대를 포함한 337대의 일반택시를 합하면 전체 택시는 1923대가 돼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 경기도, 청년일자리 해커톤 '나는 농사인이다' 최우수

###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농가 수입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한 '경기도 청년일자리 해커톤 최종발표대회'가 최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다.

대회에서는 지난 9월 '해커톤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15개 팀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계 전문가가 1명씩 참여해 구체화 된 결과물을 발표했다.

1차 팀별 아이디어 개요 발표, 팀별 토의 및 질문 과정 후 2차 팀별 최종 발표를 진행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에는 '나는 농사인이다' 우수상에는 '리터러치', '글

로벌 소셜 다이닝 매니저', 장려상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개별 지역 특화관광가이드', '미리보기 : 경기도 전통시장 장보기 대행업체 및 어플리케이션', '친환경 녹색마코드'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500만 원, 우수상 각각 300만 원, 장려상 각각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도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나는 농사인이다'는 경기도 로컬푸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중간 단계인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농가 수입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리터러치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와 교육자의 합성어로 대상별 미디

어 맞춤형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일회용품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코인 또는 지역화폐로 보상받는 친환경 녹색마코드와 글로벌 시대에 청년과 외국인 만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다.

도 관계자는 "취업난 극복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청년 주도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주도록 도에서는 오늘 채택된 아이디어를 2020년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사업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달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압축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s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i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4.51.2

X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http://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SAMSUNG





▲ 최근 롯데케미칼 봉사단이 전남 여수시 충무동 취약계층 세대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단 35명은 고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7세대에 연탄 2100장을 배달했다. 롯데케미칼 사회공헌담당 김순중 대리는 "어르신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대응 특별대책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강화된 저감대책 추진 사회재난 지정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

경남도는 겨울과 이른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등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기간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민감계층 보호, 고농도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3

대 핵심현장(대기배출, 비산먼지, 불법소각)에 대해 7개월간(‘19.11. ~ ‘20. 5.)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드론(13대) 및 민간감시원 활용, 도 및 시·군 합동 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3개 사업, 191억원)\*도 확대한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분야의 감축을 위해 내

년 4월까지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을 중단하며, 중단 기간 중 2,000억 원의 예산으로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완료 후에는 삼천포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 시 발전용량의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연료 수급 사정에 따라 상시 상한 제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22개소)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구를 지정하여 청소주기를 확대(1회/일→2~4회/일)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1,035개소)의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공동 집하장 설치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지정과 관련하여 행동지침인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이행사항 조치 등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조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계절관리제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운동 등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최현식 대기자

## 제17회 보성차밭 빛축제장 안전점검 이상무

차밭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 축제  
내년 1월5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서

29일 손님맞이를 시작한 보성차밭 빛축제가 막바지 축제장 안전 점검을 마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차밭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 "Tea Light Delight"라는 테마로 29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매일 오후 6시~10시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제17회 보성차밭 빛축제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의했고 27일 보성경찰서 보성소방서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안전보안관

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행사장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항목은 관객 이동로 위험 시설 여부, 전기 차단기, 배전반 배선 및 접지 상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화시설 설치 유무, 가스 배관시설 설치 및 완성검사 여부 및 안전거리 유지, ASF 방역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 전반으로 점검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 빛 축제의 효시로 20여 년 동안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축제인 만큼 겨울철 차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림같이 아름다운 보성, 안전한 보성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배정빈 기자

##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간담회 실시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등 강력 처벌

전남 영광군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상인 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호 간 협업체 구축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및 점검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설 명절을 맞아 영광사랑상품권 할인한도가 10%로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상품권 부정구매 및 부정유통 사례 안내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설명해 상인연합회의 자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10% 상품권 특별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군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점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을 통해 얻어진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맹점 일일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행정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철저한 신분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할인기간 동안에는 개인과 법인에 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협조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형세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품권 할인이 골목상권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취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영안 기자

## 대구 '스타강사',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

대구지법, 징역4년 선고 "죄질 매우 불량"  
월수입 수천만원 재력 이용 여성들 유혹

월수입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30대 남성 '스타강사'가 수십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고급 수입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등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 성관계하며 찍은 동영상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박상윤)는 지난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

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중간간하고, 26회에 걸쳐 중간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알아주는 명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과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이공계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강사가 된 그는 많은 학생들을 과학과 의대 등에 보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벌여들인 월 수입은 4000만~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다. 2013년부터 자택과 차량, 숙박업

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다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택에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두고 출근했는데 잠에서 깬 여성이 A씨의 컴퓨터를 켜다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900GB(기가바이트)의 불법 동영상을 찾아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장 여성들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승초 기자

## 부산, 개인택시 안전관리 일제 점검

부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12월 2일부터 26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하여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847대에 대하여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 지도·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여부 △자동차 불법정비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엔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과태료, 현지지정 등으로 296건의 행정처분한 바 있다.

부산/최현식 기자

과거의 성공이 성적이었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화성, 전국 최초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사업 펼쳐

## 수준높은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유치위해 노력 (주)동탄문화복합개발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

기존의 가격경쟁입찰 방식을 벗어나 수준높은 문화시설 유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 공모사업인 동탄2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의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1일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주)동탄문화복합개발이 사업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2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자로 선정된 (주)동탄문화복합개발의 공공기여 안을 기초로 △일자리창출 △사회환원 △지역주민혜택 등 3가지 분야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사업자가 협의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력 채용인원 중 70%를 화성

시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이용시 화성시민과 화성시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 단체 할인을 적극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1천명에게 5년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환원의 일환으로 문화공간 일부를 10년간 화성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하였으며, 시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도전적으로 추진해준 관련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부지에는 자연·해양·과학·우주를 테마로한 글로벌 실내 테마파크와 어린이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실내 동물테마파크,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1년 12월 오픈 예정이다. 화성/김용범 기자

## 여주시, 대한노인회 금사면분회 사무실 개소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65㎡ 규모 노인복지향상 앞장서는 장기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금사면분회는 최근 금사면주민자치센터 건물에 65㎡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금사면분회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및 관내 경로당 분회장, 사회단체장 등 지역주민 70명이 참석했다.

이병설 여주시지회장은“분회 사무실이 새롭게 개소함으로써 향후 노인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노인복지향상에 앞장서는 장이 되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시용 분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숙원이던 노인회분회 사무실이 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발전적인 경로당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권재윤 금사면장 “새롭게 문을 연 금사면 노인회분회 사무실을 통해 금사면 노인활동의 중심적인 역할과 함께 문화 복지 의 장으로 유익하게 활용돼 지역노인의 권익신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여주/남시현 기자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길가치키움터’ 개소

신길동 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 초등학교 돌봄·독서·숙제지도 제공

안산시는 신길동 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신길가치키움터’를 설치,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시가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생에게 돌봄과 독서·숙제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돌봄센터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공모를 통해 ‘가치키움터’를 안산의 고유 명칭으로 정했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임

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돌봄센터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신길휴먼시아4단지 주민복지관 2층에 위치한 ‘신길가치키움터’는 지난 8월 신길휴먼시아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간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2개의 활동실, 주방, 사무실 등을 갖춘 면적 230㎡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하다’가 위탁운영을 통해 상시·일시돌봄, 돌봄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첫 사례인 ‘신길가치키움터’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이동원 기자

## 포천시, 읍면동 생활개선회원 과제연찬교육

진드기 매개감염병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14개 읍·면·동 생활개선회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제연찬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제연찬 교육은 야외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등의 특성과 임상증상, 예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천아트기법을 활용한 예코백 만들기 등의 실습·체험형 수업도 진행된다.

이경훈 소장은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영근 기자



## 가평군, 신하리 신복 경로당 준공식 가져

사업비 2억여 원 투입 연면적 77㎡ 건축면적 80.6㎡ 지상 1층 규모 건립

가평군은 최근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의장 및 도·군의원,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하리 신복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1년 6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준공된 마을회관은 2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77㎡, 건축면적 80.6㎡의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돼 주민화합과 마을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20.15㎡, 건축면

적 234.61㎡의 지상 1층 규모의 복면체량리 마을회관을 준공했다.

지난해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재건축 6개소와 증축 및 보수 38개소에 28억여 원을 투입해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김 군수는 축사를 통해 “40여년 전 새마을 사업으로 건축된 낡고 불편한 경로당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단결 가벼워진 것 같다”며 “주민과 노인회뿐만 아니라 신하리 주민 전체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이동원 기자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선정... 3년간 지원



성장잠재력 높은 도내 환경기업 15개사 '2020년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해

경기도는 최근 도청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유망환경기업 대표, 환경산업 관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15개 지정기업에 대해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앞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평가, 현장실사, 2차 전문가 평가 등을 진행했다.

올해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5개사로, 굿바이카리싸이클링(주), ㈜대신환경기술, ㈜로소웰위더,

빛나매크로(주), ㈜신아전자, ㈜쓰리에이씨, ㈜에프티엠, ㈜오토링크, 유성하이텍, ㈜지엠펜, ㈜파이브케이 신규 지정됐고, (주)동일엔지니어링, (주)에이스엔, (주)에치케이, (주)엔아이휴먼코리아 등은 재지정됐다.

특히, 양주시에서 소재한 A사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수거, 분해, 재생해 휴대용 보조전원장치 또는 태양광 가모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업체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평가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정서와 현판, 기업 맞춤형 지원(국내·외 전시회 참가, 특출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외 각종 유관기관 사업신청 시 우대가점 등 19종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

원받게 된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전국의 30%이상(1만5,000여 개)이 소재한 경기도환경 기업은 다양한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대부분 영세하고 자금과 정보력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유망환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계적인 감수환경 기업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도부터 유망환경기업 제도를 시행해 온 도는 올해를 포함해 총 81개 유망환경기업을 지정하고, 맞춤형 사업 지원, 환경기술 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 지난해에는 매출액 4,973억 원, 수출액 1,445억 원과 54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기도/김재일 기자

## 용인, 임대주택 국토부장관상 표창

용인시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임대주택 등록자료 일제 정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정부의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관내 임대주택 데이터를 다른 지자체보다 2개월 정도 빠르게 입력하는 등으로 임차인 주거안정에 이바지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월 주거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 임대주택의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용인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1만472명에 달하는 관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하거나 대장이 없는 경우, 주소 불명확, 매각 추정 건 등 2만8946건의 오류를 정비해 임대주택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임대사업자 등록·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표창 수상으로 용인시가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 고양시 “SNS 교육도 축제가 된다” 기대감

원하는 강의만 찾아듣는 맞춤형 교육 ‘고양시 소셜교육 페스타’ 오는 진행

고양시가 소셜기자단을 위한 맞춤형 SNS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고양시 소셜교육 페스타’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일회성 당일치기’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총 4일에 걸쳐 일일별 다른 주제의 강의 4개를 운영하는 이례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습 집중도를 높여 기존 역량을 물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기자단의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교육 주제를 선별한 바, 사전 신청을 통해 사진 촬영 기법, 영상콘텐츠 기획, 드론 영상 촬영, SNS 운영 전략 등 원하는 주제의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첫 강의로는 지난 27일 ‘스마트폰으로 전문가급 사진 찍는 법’이라는 주제로 박찬준 강사가 교육을 맡았다. 소셜기자단의 현장 취재 시 필요한 사진 유행형 촬영 노하우를 알아

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 및 보정·편집 실습을 진행해 기자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최현정 강사의 강의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어진다.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콘텐츠 기획 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실습 시간을 갖는다.

30일 장문기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 실습’에서는 직접 드론을 조종해 항공영상을 촬영해보는 흔치 않은 기회가 마련돼 수강생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 소셜교육 페스타”의 마지막 강의는 12월 6일 정보근 강사의 ‘소셜트렌드’에 딱 맞는 SNS 운영 노하우’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최신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SNS 운영 전략을 알아본다. 지난 첫 강의를 수강한 한 소셜기자단 참석자는 “원하는 내용의 강의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맞춤형 강좌라는 점이 신선했고 특히 평소 경험하기 힘든 드론 조종 등 흥미로운 실습 과정이 있어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 2019년 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성료

마을 교육·돌봄공동체 비전 모색 행복한 마을 조성위해 협업·상생

양주시는 최근 경기섬유융합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어떻게 준비하여 시작할까’를 주제로 2019 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가칭)행복마을시민연대(양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작년도 서관연합회, 학부모회, 마을공동체, 사회경제적 조직)의 주관·주최 하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터무니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 양주시 마을 교육·돌봄공동체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회의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는데 우선 토론회는 김한호 청소년정치아카데미 대표의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센터장 주용국), 양주자이아파트 작은도서관 연합회(회장 정해숙), 학부모모임(양주혁신지구 운영위원 김병천), 씨실·날실 공동체(대표 임은은), 창의혁신교육 사회적협동조합(위원장

임리라) 등이 발제와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다음으로 당일 참석한 100여 명의 공동체 관계자들이 각 주제별 테이블로 이동해 자율 토론을 이어가는 원탁회를 진행, 마을 안에서의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참여방법,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윙하모니 윤지훈 대표는 “여러 주제들을 만나 참여를 설득하고 두려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을에서의 교육과 돌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교육·돌봄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각 주제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사를 서로 이해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 서로 협업과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였길 바란다”면서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 한국도자재단, '2019 국제공모전' 수상작 발표

### 실용작품 등 18개국 42명 작가 작품 266점 전시 이천세계도자센터서 관람객 체험 이벤트도 진행



한국도자재단이 '2019 국제공모전' 수상작가 7명을 선정하고, 29일부터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2019 국제공모전은 지난해 10월 31일까지 휴(도자)를 주제로 예술

작품 또는 실용작품을 작업하는 전세계 도자 예술가를 대상으로 표현도자, 생활도자 등 총 2개 부문에서 작가 모집 방식으로 진행한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82개국 1,599명 작가 작품 1만716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할 작가 302명이 선정됐다.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팁 블랜드(미국), 표현부문 우수상에는 △맹옥재(한국) △아네타 레겔(폴란드), 생활부문 우수상에는 △호테타 츠요시(일본) △이정원(한국), 표현부문 특별상에 △이인진(한국), 생활부문 특별상에 △크리스티나 리우(미국·대만) 등 총 7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이번 전시는 수상작가 7명을 포함한 세계 18개국, 42명 작가가 참여해 대상작가 팁 블랜드의 '짜증', 우수상 맹옥재 작가의 '비밀의 숲', 박서희 작가의 '백자다면주병' 등 예술

적 가치가 높은 도자작품 266점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지난 2017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토르비온 크바스비 작가의 특별초청전 '베이스 클러스터'를 통해 노르웨이 화병 제조공장의 150년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 3,000여 개의 화병 조각이 만들어진 작품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또 전시기간 중에는 엘리자 아우, 맹옥재, 유진아 등의 작가가 콜라보로 펼치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신만의 장신구 만들기', '자연의 향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 최연 대표이사는 "2019 국제공모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율을 나타낸 만큼 고정관념을 넘어선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며 "관람객들이 도자를 통해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지역화폐 '고양페이'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연시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 매출증대 위해 실시

고양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10% 인센티브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연말과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15일간 1차 특별이벤트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2차로 중점금액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이벤트 기간에는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0%인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의 특별이벤트 기간에 100만원씩 총전할 경우 총 20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두 번의 특별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좋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매출이 늘어나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 고양시, '수제품사업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 모아 수제품사업 육성·활성화사업에 반영

고양시는 최근 '고양시 수제품 사업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0년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의 시행에 앞서 수제품 사업 활성화에 관한 고양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수제품사업 육성 및 활성화사업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총 31명의 참여자가 아이디어를 제출한 이번 공모에는 프리마켓 활성화 방안,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방안, 셀러 교육 및 창업지원 방안, 기타 수제품사업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 종합적인 수제품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수제품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단의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와 창업경험이 있는 시니어세대의 협업모델을 제시한 '청년, 멘토' 프로젝트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고양시 공예 인프라 클러스터링 플랫폼 제작 제안, 고양시 수제품을 알 수 있도록 수제품 포장 패키지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그 외에도 배움의 문화를 파는 특화프리마켓, 상설 프리마켓 제안, 플라워프리마켓 제안, 온라인 수제품 페이지 구축 및 수제품 활성화에 관한 종합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공모전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제품 사업자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해 영세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 안산시 드림스타트 10주년 성과보고 '다같이, 다가치'

### '하늘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 가족 돌봐

안산시는 드림스타트 사업 10주년을 맞아 '다같이, 다가치'의 주제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하늘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다.

전날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된 행사는 율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연계단체, 후원관계자, 안산시 드림스타트 아동·학부모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 업무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10년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드림스타트 영상 상영,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꾸민 합창, 한국무용 공연을 비롯해 샌드아트 축하공연과 비전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44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드림업 합창단'의 오프닝공연은 짧은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준비한 2곡을 온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줘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율화섭 시장이 전달한 색색의 D.R.E.A.M 풍선은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참석자 모두의 미소를 자아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안산시 드림스타트를 만난 후 아이가 밝게 성장하고 있어 관계자에게 감사하

다"며 "아름다운 감동의 울림이 곧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안산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율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0년의 발자취는 드림스타트 관계자와 지역사회 단체, 시민들의 따스한 마음과 온정의 손길들이 더해진 값진 성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소중한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이 웃는 행복한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 파주, 평화·통일 시민강연 성료

파주시는 최근 진천구 통일TV 대표를 초청해 '파주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여행'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금촌권역과 문산권역으로 나눠 오전 10시에는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오후 2시에는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2시간씩 진행됐다.

강연에 초청된 진천구 통일TV 대표는 그동안 한겨레 사진기자 때부터 현재까지 북한을 방문하며 취재한 자료로 흥미로운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강의했다.

진 대표는 "최근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면서 도시가 변하고 있어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서 강조한 '열악한 북한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며 "변화하는 북한의 현실을 바로 알고 그들을 이해하며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필요성을 많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리적 특성으로 남북 관련 사업이 많으며 지자체의 남북 협력이 강조되는 때에 시민들이 북한을 바로 알고 함께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성태 기자

#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 서다 보다 걷다

##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넌다**








# 경북도 미래먹거리, 물에서 길을 찾다



## 물산업 육성·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논의해 물산업육성협의회 개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경북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19년 물산업육성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 물산업육성협의회는 경북 물산업 발전과 물기업 지원을 위해 '12년 구성(임기 2년)되어 4기째를 맞았다.

주요기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물산업 육성 자문 및 관련 정보·기술 공유, 물산업 육성정책 발굴 및 물기업 지원방안 강구 등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해 왔다.

이날 회의는 영남대 최대희 박사의 '경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개선 방향' 발표와, 이원태 금오공대

교수의 '물산업 해외동향과 경북도의 해외진출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희 박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재 경북도 물산업 선도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17~'19년 도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발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구미 그린텍을 비롯한 도내 많은 물산업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을 상업화시키는 부분이나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성장에 한계를 가지는 점이 아쉽다며, 도에서 해외 마케팅과 수출지원, 관련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금오공대 이원태 교수는 물산업 해외동향 및 경북도 해외진출 방안 발표를 통해, 매년 3.7%이상 성장하는 세계 물산업 시장은 이제는 블루오션을 넘어 산업 강국들이 미래 먹거리로 상정하고,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등 물산업 선진국의 공격적 투자 사례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물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관주의의 대형 물산업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베를리아,

수에즈와 같은 글로벌 물기업을 양산하는 일에 경북도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점차 확대되어가는 개발도상국의 물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을 통해 물 관련 글로벌 브랜드를 양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순화 협의회장은 '19년 경북 물산업육성협의회는 그동안 토의결과를 경북도에 전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오는 13일 개최되는 '경북도 물산업 육성 워크숍'을 앞두고 연계 개최하여, 23개 시·군의 담당공무원들과, 기업 관계자, 관련전문가들에게 회의 결과를 빠르게 전달하고, 물산업 현장에 새로운 정책을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회 역할의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2019년 물산업 육성 성과 및 2020년 경북도의 물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물 산업은 태초의 생명의 원천에서 현재는 가치의 원천으로 바뀌고 있다. 경북도 물산업 협의회는 경북 물산업 관련 브레인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 경북 물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주, 지역인구 문제 함께 고민

영주시에서는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아이조아(인구정책) 민·관 협력 네트워크 2차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아이조아(인구정책) 민·관 협력 네트워크는 지난 6월 실 수요예측 및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개최되었던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번 2차 간담회는 1차 간담회 제안사항과 제안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활발한 토의를 하며 민·관이 함께 의사를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를 통해 인구정책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학부모모니터링단 소속 이지현 위원은 "우리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사원 기획예산실장은 "인구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결혼·임신·출생·육아·교육·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 영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우리 지역 안전부패 근절 위해 하나로 뭉치다

## 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식해 33개 기관·36개 안전·감사부서 참여

경북도는 28일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분야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북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도와 23개 시군, 경북도 개발공사 등 2개 지방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7개 지역 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참여 기관 간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반부패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부패 근절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분야 부패 실태조사와 정보공유, 합동 감찰 등에 대한 구체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별 반부패 중점 과제 선정과 이행 성과 공유 등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현정부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협의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제 감찰과 같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광역



자치단체와 합동 감찰하는 등 생활 속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도청 전시중합보고장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찰총괄팀장의 안전분야 반부패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기관·도에서 추진해 온 안전감찰 사례 발표에 이어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내년부터 지역협의회 구성원들은 기관별로 개선이 필요한 안전분야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전감

찰을 추진하고, 공통적인 개선사안에 대하여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합동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회의를 통해 성과와 미흡한 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용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제 지역협의회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한명 한명이 소중한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관광 스타트업·벤처 육성 사업 첫 성과보고회

### 관광투어프로그램 등 15개사 선정 모이드(주) 등 우수기업 6개 시상

경북도와 경북콘텐츠진흥원은 경북콘텐츠진흥원 2층 스튜디오에서 '경북 스타트업·벤처 육성 사업' 추진과 성과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 스타트업·벤처 육성 사업은 관광분야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5개의 관광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최종 결과물을 완성했다.

이날 보고회는 스타트업 전문가가,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각 기업들의 성과발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킹, 우수기업 선정,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스타트업 전문투자자가 참여해 스타트업의 성과 발표를 듣는 만큼 실제 투자를 받는 기업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올해 경북 스타트업·벤처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체험부부 모이드(주) 등 5개 기업, ICT부분 ㈜네스트로 등 5개 기업, 기타부분으로는 아이엠커뮤니케이션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추가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까지 통합 지원해 사업의 파급력을 높인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주세에 발맞추어 앞으로 차별화된 관광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호남 상생 박물관·미술관 손 맞잡아

### 박물관, 미술관 워크숍 개최해 안동서 교류활성화 워크숍 열려

경북도는 지난 28일부터 양일간 안동 리첼호텔에서 (사)경북도박물관협의회와 (사)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상생 박물관·미술관 교류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경북박물관협의회는 2008년에 설립하여 박물관·미술관 40기관(국립19 공립19 대학7 사립13)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박물관연합회, 2014년 교육박물관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박물관·미술관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영남과 호남 협회간의 상호 교류로, 각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인적교류 등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첫날인 28일에는 (사)경북박물관협의회와 (사)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가 교류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을 시작으로 최희병식교수(경희대)의 특강으로 지역 박물관협의체의 과제와 개선방안 연구 △신종환관장(대가야박물관)의 경북지역 지역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발표 △곽형수 협회장(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의 전남지역 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안동민속박물관 및 하회마을 등 문화답사를 하며 협회 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황영호 경북도 문화산업과장은 "영·호남 교류활성화 워크숍을 계기로 양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영·호남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주시보건소, '재난응급의료사업 우수기관' 선정



### 응급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연찬회 응급의료 발전위한 화합과 교류의 장

영주시 보건소가 2019년 재난응급의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주 컨스팅리조트에서 개최한 2019년 응급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연찬회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응급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연찬회는 한 해 동안 응급의료체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응급의료 우수기관을 발굴해 포상하고,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화합과 교류를 펼치는 장으로 경북도가 주관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가 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응급 및 재난업무 전반 6개 분야 11개영역 17개 지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재난 현장응급의료 운영,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닥터헬기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온열 및 한랭 질환 등 시민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해온 점 등이 다른 시·군 보건소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석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응급의료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 보건소는 겨울철 기상 이변에 따른 폭설·혹한 등 극한 이상기온에 대비해 취약지역 주민의 응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영주/정승초 기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문화가 있는 날

### '관객 참여형 마술' 공연 큰 인기 다양한 소재로 재미와 감동 제공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지난 27일 올해의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는 관객이 무대에 나와 마술을 직접 체험하는 '관객 참여형 마술 공연'이 마련되었다.

이번 공연은 1천 회 이상의 공연 기록을 가진 한국마술협회 대구시 지부장 '신진욱 마술사'의 공

연으로, '로프, 마우스코일, 태극기, 메시지 천'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아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은 물론 상상력을 넓힐 기회를 제공했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올해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통해 수목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성하고 질 높은 문화공연을 운영하여, 단순한 관람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실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2019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 개최

### 진실·질서·화합 바르게살기 30년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 공로

경북도는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이종평 회장) 주관으로 28일 영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1,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를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는 한 해 동안의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성과를 총 결산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기초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바르게살기 생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인 국민포장에는 경북도협의회 김영수 여성회장, 대통령 표창은 칠곡군협의회 배준길 씨, 국무총리 표창은 청도군협의회 이순식 씨와 포항시 해도동위원회 정명교 씨가 수상했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20명, 도지사 표창은 25명이 수상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포상으로 바르게살기 금장 24명, 중앙협의회장 표창 49명, 도협의회장 표창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는 1989년 3월 24일 창립하여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국민운동단체이다.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 아래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초 법질서 지키기,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안전문화 정착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에서 기초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포스트 부산-아세안, 맞춤형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 10개 국가별 맞춤형 부산관광 홍보마케팅 추진해 베트남 호찌민 '2019년 어울림 이플림 행사' 참가

부산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이후 고조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부산으로 연결해 6.5억 명의 인구와 연 5%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젊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아세안 시장의 관광객들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에 나서며 부산 관광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분위기를 이어 신남방 지역 교류·협력력을 강화하며, 이달 말 주호찌민총영사관 주관으로 빈흥센터파크공원에서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개최되는 '2019년 어울림 이플림 행사'에 참가했다.

약 7,000여 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해 '매력적인 도시로서의 부산, 찾고 싶은 도시로서의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부산 방문객은 2018년 10만 명 돌파, 2019년 9월 말 현재 9.8만 명으로 연간

12~13만 명의 베트남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현지박람회 참가 및 인플루언스·미디어·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통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세안 타깃 도시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신규 부산관광홍보사무소 사무소 개소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민선7기 동북아중심, 글로벌부산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 부산관광홍보사무소는 현재 타이베이, 오사카, 베이징, 방콕 등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무슬림 관광시장 개척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부산관광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말레이시아의 부산 방문객은 2018년 9월 4.4만 명에서 2019년 9월 말 현재 5만여 명으로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 3천2백만 명 중 2천만 명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무슬림 친화 관광객 유치 기반구축과 한류와 할랄을 이용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상으로는 로드쇼, 여행박람회 및 개별여행(FIT) 관광객 유치 세미나 등의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 연 3회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등 해외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싱가포르관광청과의 관광교류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C)를 체결했으며, 5월에는 부산과 싱가포르를 잇는 직항 노선이 개설되고, 8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섬싱 인 부산 페스티벌'이라는 싱가포르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등 두 도시 간 활발한 관광교류가 이루어졌다. 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최대 인구 규모로 전체인구 87%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에는 르바란 기간\*과 연계해 부산 방문 관광을 홍보하고 환대 행사를 추진한다. 한류와 식도락에 관심이 많은 태국에는 태국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해 부산관광 홍보 이벤트를 하고, 필리핀 관광객에게는 가을/겨울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세안의 잠재시장인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아세안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 국제교류 플랫폼과 연계해 공동 마케팅 사업을 발굴하여 부산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과 아세안과의 관계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부산과 아세안의 관광산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20 관광수용태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교통, 관광안내·정보, 숙박, 식당·음식, 쇼핑·기념품, 관광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13일간 전포동 놀이마루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아세안 10개국 현지 유명 맛집 셰프를 초청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선보인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으며, 향후 한-아세안 푸드스트리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최만식 기자

## 경남도, 예술콘서트 개최로 보육교사 격려



### 도청서 보육교직원 700여 명 참가 다채로운 공연 펼쳐 감사의 뜻 전함

경남도가 최근 경남도청 신관대강당에서 보육교직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 보육교직원을 위한 예술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예술콘서트는 <자존감 높은 교사로 거듭나다>라는 주제로,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서트는 보육 유공 시상식, 아동인권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 희망선서, 초청가수 미스트롯 설하운 공연,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동선 공연, 민드림컴퍼니 뮤지컬 공연 '빛나도 괜찮아', 창원시립 여자어린이집 김선희 원장을 비롯하여 62명의 보육교직원들이 경남도지사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보육인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사랑감을 가지고 일하는 보육교직원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서 "보육교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최만식 기자

## 경남 향노화산업 맞춤형 산·학 협력모델 구축 '시동'

### '향노화산업 협의회 발대식' 가져 산·학 협력 친화적 문화 확산 기대

경남향노화(주)와 경남도립거창대학이 경남의 향노화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산·학 협력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남 향노화산업 협의회 발대식'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주최하고 경남향노화(주)가 주관하여, 한국선비문화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관련 대학과 향노화식품, 피부미용, 제약, 웰니스관광 분야 등 도내 20여 개 향노화산업 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박용동 총장의 환영사와 김영주 대표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발대식은 상생 협약 체결과 향노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강연 등으로 꾸며졌다.

협약 체결식은 경남도립거창대학과 참여 기업체 간 향후 지식·기술 정보의 활발한 공유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유기적 협력관계 구현 △현장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연계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지식·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공유와 공동 활용 △인력 채용 시 채용정보와 인재 정보 우선 제공 △양 기관의 정보 교류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강은 강상수 경상대학교 향노화

산업화플랫폼단장이 나서 향노화산업 현 △현장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연계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지식·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공유와 공동 활용 △인력 채용 시 채용정보와 인재 정보 우선 제공 △양 기관의 정보 교류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강은 강상수 경상대학교 향노화

경남/최만식 기자

## 경남도, 벼 보급종 종자 신청

경남도농업기술원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20년에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를 오는 20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벼 보급종 종자는 11품종 1,265.78 톤으로 매벼 9품종과 찰벼 2품종이며,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농업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상담소,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포장은 20kg 단위로 공급되며, 1ha당 종자 소요량은 50kg를 기준으로 농가에서 소요량을 판단하여 신청하면, 신청한 종자는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종자는 소독과 미소독을 구분하여 신청 받고 있으며,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소독 후 범시 파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경남농업기술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기한 내에 벼 보급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급종 신청 및 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경남 농업기술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최만식 기자

## 2020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성공 나선다

### 국제로타리 한국총재단과 업무협약 로타리 19개 지구와 홍보·관람 체결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통영 스탠포드 호텔 세미나실에서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로타리 한국총재단'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양향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국제로타리 한국총재단 산하 전국 19개 지구로써 3590지구를 비롯한 3600, 3610, 3620, 3630, 3640, 3650, 3661, 3662, 3670, 3680, 3690, 3700, 3710, 3721, 3722, 3730, 3740, 3750 등이며, 해당지구의 총재들과 장순천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체결식은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로타리 한국총재단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엑스포 홍보를 통해, 관련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국제로타리 산하 19지구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각종 행사를 엑스포가 열리는 함양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 협력체제도 함께 마련하였다.

국제로타리 한국총재단은 전국 19개 지구, 6만5,300여 명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고 문해력 증진, 질병 퇴치, 기아 및 빈곤 감소, 안전한 식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장순천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국제로타리 한국총재단과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제로타리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엑스포 홍보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는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함양 상림공원 일원과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펼쳐진다.

경남/최만식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 천년왕도

## 경주

산성지구 ▶

월성지구 ▶

황룡사지구 ▶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 소통하는 의정, 시민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불국사

석굴암



# 광양시, 금속가공 열처리지원센터 건립 탄력



## 센터운영 인프라 지원 및 열처리장비 추가 구축 특별교부세 20억 원 추가 확보, 뿌리산업 활성화

광양시는 익산산업단지 열처리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최근 전라남도로부터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열처리센터 건립에 드는 사업비 130억 원 중 총 8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익산산업단지 일원에 1,740㎡ 규모로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계획 대비 건축비 증가와 열처리 장비 보강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뿌리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와 산·학·연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20억 원은 시비와 매칭해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장비 보강과 센터운영 인프라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

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시는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익산산단을 중심으로 열처리를 특화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뿌리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광양시에서는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주기업을 위한 분석 장비와 사업화 지원시설 등이 완료되면 연관기업 입주와 함께 금속가공 중소기업들이 외주 가공을 위해 경남 김해와 창원을 이용하는 등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처리센터는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과 장비도입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열처리 장비 선정 관련 2회에 걸친 지역 기업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뿌리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열로 유능장치, 진공로 질화로 세척, 소트기, 샌딩기 등 7종 8대의 장비도 선정했다.

정승재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열처리지원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남지역 뿌리산업단지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영안 기자

## 가을 맛 즐기는 '보성 만추 미식여행'



### 전문가와 함께하는 새로운 보성 관광 콘텐츠 미식 관광 선보여

보성군은 최근 '푸드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보성 만추 미식여행'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보성 만추 미식여행'은 보성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에 최신 관광 트렌드인 미식이라는 테마를 품격 있게 담아 낸 여행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 차에 국한되어 있던 보성의 관광자원을 문학, 예술, 미식 등의 범위로 확장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보성의 매력을 알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부자집에서 진행된 '보성 식재료 도시락 체험'과 제철음

식·지역술로 차려진 '보성 고택 지역 술 페어링'은 한정된 자원에 감성을 더한 테마로 관광객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보성여관에서 진행된 '보성 만추 실내 음악회' 등은 보성에 체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휴양을 하도록 구성되어 새로운 여행상품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성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미식 및 인문학적 복합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보성의 숨은 관광 매력 및 미식을 알리는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보성/배정민 기자

## 무안군, 우석대 대학생 무안공항 활성화 캠페인

### 전단지 배부와 홍보활동 전개

무안공항에서 전북 우석대 대학생 40명이 공항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최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무안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우석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공항활성화와 이용객 증가를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무안/조기석 기자

또한 대학생들은 공항공사로부터 공항현황을 청취하고 현장견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타이베이 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은 한 여행객은 "무안공항이 타 공항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출국속도 절차가 빨라 무안공항을 자주 이용한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의 캠페인 활동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 보성·고흥·장흥·강진 4개 자치단체들 청정연안만 보존개발 프로젝트 추진

득량만과 강진만을 중심으로 보성군·고흥군·장흥군·강진군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27일 강진군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의회 의장 신경균, 고흥부군수 정상동, 고흥군의회 의장 송우성, 장흥군수 정중순, 장흥군의회 의장 위두, 강진군수 이승욱, 강진군의회 의장 위성식 4개 군 군수, 의장들은 협의회 공동발전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4개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잠재력을 지닌 득량만과 강진만을 보존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했다. 또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해양 시대의 중심에 득량만과 강진만이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청정연안만 보존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실시해 득량만강진만권을 미래지향적 해양관광 수요창출과 균형개발을 위해 산업, 관광, 유통분야 등 다양한 전략사업의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다. 더불어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정책 등 대형 사책 유치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 회장군인 보성군 김철우군수는 "득량만 강진만권의 균형있는 개발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4개 군이 하나로 신속한 정보공유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협의회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보성/배정민 기자

## 여수시, '학부모 감성 토크 콘서트' 2일 개최

### 저녁 7시 여수문화회서 조벽 교수 최성애 박사 강연, 소통의 장 마련

여수시는 내달 2일 저녁 7시 여수문화회에서 교육 전문가 조벽 교수와 최성애 박사를 초청해 '학부모 감성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조벽 교수는 '정서적 흡수력, 정서적 금수저'와 '미래사회의 인재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최성애 박사는 '부모의 인성은 자녀의 자산이다', '좋은 인성은 학습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이어간다.

이후 강연자들은 참석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녀 교육과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교육지원과(☎ 659-5218)로 문의하면 된다.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잘 알려진 조벽 교수는 '인성이 실력이다', '수업 컨설팅', '조벽 교수의 인재혁명' 등 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EBS 교육마당과 국회 방송 '인성이 미래다' 등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내 최고 감정코칭 전문가로 유명한 최성애 박사는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청소년 감정코칭', '행복일기' 등을 출판했다. EBS다큐프라임 '마더쇼크', MBC 스페셜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등에 출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자존감 회복과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 '해남 절임배추의 명성 지키자' 원산지 단속

### 김정철 맞아 품질·위생관리 집중 점검

해남군은 관내 절임배추 작업장 950여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원산지 단속 및 품질·위생관리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절이 시작됨에 따라 군은 '명품 해남절임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농가의 품질, 위생관리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타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거나 영업

목 없이 절임배추와 함께 김치양념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조치 후 내년도 절임배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산농가 스스로 해남절임배추의 자부심을 지킨다는 각오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임배추를 생산하자"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품질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강영호 기자

## '장흥-광주 빨라진다' 지방도 817호선 확포장 확정

### 굴곡 심해 교통사고 잦아 민원 많아 4차로 확포장 및 직선화 400억 확보

장흥군은 유치면 녹음~보림삼거리 간 지방도 817호선 확포장 공사가 확정돼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유치면 녹음삼거리~보림삼거리는 연장 2.7km로 2006년 장흥댐 이설도로 준공 이후 군으로 이관돼 관리해온 도로다.

이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겨울철 상습 결빙이 일어나 교통사고가 잦아 수많은 민원과 개선 건의가 이어지던 곳이다.

2006년부터 지방도 지정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의원, 번영회 등 관계각층의 노력으로 2011년 지방도 817호선으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올해 3월 임영록 전남도지사 방문 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유치 녹음~보림삼거리 구간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월에는 장흥군번영회에서 읍면 번영회와 함께 군민들의 뜻을 담은 2100여명의 자필서명 건의서를 전남도에 전달했다.

이후 정중순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도지사와 관계부서를 수시로 방문해서 설득하고 현장에 초청해서 설명하는 등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



울어 왔다. 유치면 녹음~보림삼거리 간 확포장 공사의 확정에는 전남도지사의 통 큰 배려와 장흥군 관계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이 지역 안팎의 평가다.

장흥군은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400억 원으로 도로 급커브구간과 도로 결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도로 선형개량보다는 도로 직선화를 위한 터널공법 추진을 전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중점 부서는 유치~이양간 4차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장흥에서 광주를 오가는 운전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동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 겨울철 상습결빙 해소는 물론, 장흥군을 찾는 유통인구 확대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 구례군, 세계에이즈의 날 캠페인



구례군은 '제3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28일 오전 10시부터 5일 시장, 버스터미널, 농·축협마트 주변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한 해 1,206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생했다. 20대가 32.8%로 가장 많고 20~40대가 7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의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에이즈는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만큼 올바른 피임기구 사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꾸준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군 관계자는 "에이즈는 백반의 검 색보다 한 번의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에이즈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용만 기자



# 전주시 도심호수 살려, 시민 삶의 질 '쑥쑥'

### 에코시티 세병호·혁신도시 기지제 산책로 정비 도심 속 시민 휴식·힐링 공간 제공 위해 마련해

전주시가 곳곳에 위치한 호수를 쾌적하게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코시티 세병호, 혁신도시·만성지구 기지제, 덕진공원, 아중호수 등 다양한 도심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내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돼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에코시티 세병호 주변 산책로를 안전하게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부터 세병호 산책로 1.37km 구간의 폭 6m 중 2.5m를 탄성 포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전주 서부권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기지제에는 총 40억 원을 투입해 총 1.37km 구간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사업비는 만성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 전주시가

공동 부담하며 시는 LH에서 추진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1.37km 구간 중 800m 구간에는 수중 데크가 설치되고 육상 산책로 540m 구간 정비 및 30m 길이의 교량설치 등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심 속 친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경사로 된 산책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덕진공원 연못도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최초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덕진연못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전주덕진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연화정은 올 연말까지 신축 설계를 거쳐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시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의 동·남부권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인 아중호수 주변 2.4km 구간에 순환 산책로를 개통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억8400만원을 투



입해 아중호수 상류 1만1000㎡ 부지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습지식물 12만여 주를 식재하는 아름다운 습지정원도 조성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 곳곳의 물길과 도심호수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중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보고로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천과 삼천 등 전주지역의 물줄기와 덕진공원과 아중호수, 혁신도시 기지제, 에코시티 세병호 등 호수를 되살리고 쾌적하게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이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하은 기자

##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통합플랫폼 운영

### '숲나들e'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편의 증진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사전 예약을 산림청 통합플랫폼인 '숲나들e'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통합플랫폼 '숲나들e'는 전국의 자연휴양림 147개소를 한 곳에 통합해 운영하는 원스톱 예약시스템으로 숲나들e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국 147개 자연휴양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이용할 수 없던 패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도입되어 보다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숲나들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도입으로 절차와 방법이 더욱 간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산림청 통합플랫폼을 통한 주작산 자연휴양림 원스톱 예약시스템 확립으로 보다 폭넓은 관광 정보를 공유하며 방문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예약 진행을 위해 사전에 '숲나들e'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리 회원가입을 하길 바란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효란 기자

## 장흥군, 수계관리기금 우수기관 '2관왕' 쾌거

### 상수원지역 홍보통해 불법 근절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문 우수상

장흥군이 2018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3분야 중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 이번 평가에서 장흥군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장흥군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분야에서 k-water와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깨끗한 수질 및 댐주변 관리, 주민 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등 사업관리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10개 시군의 첫줄인 장흥담을 성실히 관리하고 청정장흥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시공에 힘써 장흥군민을 넘어 전 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 보성,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보성군은 최근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및 대회구호 공모를 실시해 오는 2020년 5월에 열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목 튀는 아이디어와 디자인 능력을 뽐내고 명예를 갖기 위해 많은 참가가 전망되고 있다.

공모 참여 방법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공모가 끝나는 12월에 디자인 분야 전문교수 3명을 심사위원회의 위촉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선작품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각 종 대회 홍보 사업에 이용될 것이다.

보성/배정빈 기자

##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술로 학교폭력 예방

### 담양중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페이스페인팅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담양중학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미술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매체가 활용된 가운데 페이스페인팅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그 외에도 글라스데코, 에코백 만들기,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30회가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대인관계 기술 습득, 자기효능감 향상과 더불어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방법을 배워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꿈에 대해 보다 진지



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숙 센터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고 더불어 자존감 향상,

또래 관계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오홍근 기자

## 영광군, 찾아가는 초등학교 구강의료서비스

### 불소도포로 건강한 치아관리 실시

영광군은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4개 초등학교 2,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했다.

초등학생 시기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 및 맹출되는 혼합 치열기로 충치가 발생하기 쉽고 유치에 발생된 문제점이 계승 영구치에 영향을 미쳐 맹출 장애 및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 시기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 및 구강보건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불소 바니쉬 도포는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어린이

들의 치아 표면에 불소를 발라 침투하게 함으로써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시술로 충치 세균에 대한 내산성을 높여 충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비 절감효과와 어린이 스스로 건강한 치아 관리의 습관을 기르는 좋은 기회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윤정희 보건소장은 “어릴 때의 구강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을 통해 초등학교생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습관을 형성시켜 평생의 구강건강을 지켜주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영만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P**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 수년간 남몰래 요양병원 생선 제공해 '화제'



## 박종욱씨, 어르신 건강위해 써달라며 기증 갓 잡아올린 생선 신선도 유지위해 급냉동

저인망 어선으로 고기를 잡아오던 60대가 남몰래 요양병원에 수년간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어 화제다.

박종욱 씨(64·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지구)는 최근 전남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S요양병원에 갓 잡아올린 각종 생선류를 신선도 유지위해 급냉동 시켜 기증해 오고 있다.

S요양병원에는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등 노인 환자들이 장기적인 요양과 치료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으로 노인 환자들이 여 명을 보내기 위해 입원하고 있다.

이에 박종욱 씨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매년 어선이 출항하면 직접 잡은 각종 생선류를 어르신 건강 위해 상 차림을 해달라며 3~4박스씩 기증해 나눔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평소 이웃에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시설단체 등 지역 구석구석에 넉넉한 인심과 사랑의 온정을 뽐내고 있다고 한다.

박종욱 씨는 "힘은 들지만 장기적인 요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나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며 "싱싱한 생선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종욱 씨는 현재 안강만 수협이사로 여수시 구흥군항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여수/이남출 기자

## 고양, 주민 집수리지원사업 '한창'

경기 고양시 이곳저곳에서 집수리가 한창이다. 도배 한번 새로 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싱크대·화장실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방문하는 곳마다 주민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고양시-농협중앙회고양시지부-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간 '집수리지원사업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사회복지단체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추천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해 최종 33가구를 선정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환경이이익적립금 2억원과 지역농협 후원금 4천만 원으로 추진되는 집수리지원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만족도에 따라 내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집수리현장을 방문한 이재준 시장은 "30년 동안 도배 한번 바꾸지 못한 주민께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번 사업의 의미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고양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한편 시민의 소중한 마음도 잘 담아낼 수 있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 한돈협회파주시지부 한돈 후원으로 이웃사랑

1,000만 원 상당 한돈 돼지고기 870kg 장애인복지관 등 8개 기관 이웃에 전달

한돈협회 경기 파주시지부는 최근 1,000만 원 상당의 한돈 돼지고기 870kg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파주시에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한돈협회 파주시지부 임명희 수석 부지부장을 비롯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대책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돼지고기는 파주시 맞춤형 복지지원팀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등 8개 기관의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협회는 2015년부터 추운 겨울과 명절 등에 매년 1천여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회에 걸쳐 2천7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한 바 있다.

임명희 한돈협회

수석 부지부장은 "안전한 축산물인 한돈 돼지고기를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돈 협회 파주시지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에서 안전한 먹거리인 돼지고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파주시는 양돈 농가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양주 남문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출신 이현준 군



제주국제관악콩쿠르서 우승 차지  
부상으로 받은 수제 트럼펫 기증

경기 양주시 소재 남문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출신의 트럼펫터 이현준 군이 후배 양성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수제 트럼펫을 모교인 남문중학교에 기증, 지역사회에 감동을 선사했다.

한양대 음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현준 군은 지난 8월 아시아 최대의 관악콩쿠르인 '제14회 제주 국제관악콩쿠르 대회' 트럼펫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트럼펫터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모교인 남문중학교에 기증한 트럼펫이 역대 최다 참가자가 몰리며 열띤 경연을 펼친 제주 국제관악콩쿠르의 우승과 함께 수여받은 부상이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현준 군은 중학교 1학년 시절, 남문중학교 음악 교사인 심재선 교사의 지도로 처음 트럼펫을 배웠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화되고 트

럼펫 부문 수석 합격했다.

이후 한양대 음대콩쿠르, 부산 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등 각종 대회에서 1위를 수상했으며 KBS 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 단원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주도립교향악단과 협연 공연을 펼치며 음악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유일한 한국인 우승자인 이현준 군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트럼펫의 기본기와 연주자의 기본 소양을 지도해준 남문중 윈드오케스트라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문윈드오케스트라 후배들이 음악 연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남문윈드오케스트라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희빈 남문중학교 교장은 "남문윈드오케스트라는 2007년 창단하여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기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는 남문중과 양주시의 자랑"이라며 "자신의 기량 연마에 최선을 다하며 공연을 준비한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과 모교를 위해 트럼펫 기증과 협연 연주를 해준 이현준 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 용인, 대한상공인발전협회 이웃돕기 성금

회장·회원 시정 방문 100만 원 기탁  
지역 어려운 이웃돕기 위해 정성 모아

경기 용인시는 변형근 대한상공인발전협의회 회장과 회원들이 백군기 용인시장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평소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온 34명의 회원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을 모은 것이다.

변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려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용인/남시현 기자

## 장성군 이원형 씨, 장성장학회에 금일봉 기탁

"이웃에게 받은 도움 갚고파"  
어려운 이웃 위한 선행 앞장

전남 장성장학회는 최근 지역 주민 이원형 씨가 장성장학회에 금일봉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장성장학회에 따르면, 이원형 씨는 고향인 장성을 떠나 타지에서 청·장

년기를 보내면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소년·소녀 가장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왔다. 또한 틈 날 때마다 한할을 하는 등 크고 작은 봉사를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원형 씨는 "귀향해 정착할 당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웃주민과 지역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자투리 돈을 아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두석 이사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움까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큰 감명을 받았다"며 "그 진심이 이웃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성/오홍근 기자



## 지역소식

### 의정부, SK뷰아파트 부녀회쌀 전달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SK뷰아파트 부녀회는 최근 관내 저소득 이웃들을 위한 백미 10kg 12포를 기증하며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가능동 SK뷰아파트 부녀회는 기부와 봉사 등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의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미숙 부녀회장은 "추운 겨울 부녀회에서 전달한 후원물품이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규 가능동장은 "매년 가능동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여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모범이 되는 SK뷰아파트 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기부가 사랑 나눔에 앞장서는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용인, 장애인가구김치50박스 전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증장애인 24

가구와 경로당 13곳에 김치 50박스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을 직접 대상 가구와 경로당을 찾아가 김치를 전달하고 한파를 대비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이날 전달한 김치는 지난달 주민자치위원회가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준비했다.

박순구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마음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 광주시, 나눔캠페인 '온도탑' 제막식

경기 광주시는 최근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 영암지역자활센터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14개 단체 200여 지역민 함께 참여해  
900세대 어려운 이웃 직접 방문 전달

전남 영암지역자활센터는 최근 지역민과 함께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김치나눔 행사는 제 18회를 맞아 영암사랑나눔봉사회를 비롯한 14개 단체 200여 명이 참여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선물하는 나눔 행사이다.

각 단체에서는 900세대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해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있다.

영암군 지역자활센

터는 지역민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자활을 위해 자활사업을 추진해 2012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인 우수 모델이 되고 있다.

영암/이경화 기자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광주시에 소외받은 이웃이 없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도탑에 전달됐으면 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온정이 널리 퍼져나가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 안성, '사랑의 난방비' 전달식 가져

경기 안성시 공도읍기업인협의회(회장 이택구)는 최근 공도읍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겨울철 난방비 100만원을 공도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택구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추위를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



안성/남시현 기자



# 부산시, 미얀마로 떠나는 불교미술여행

### 부산박물관 6~28일까지 '미얀마 불교미술여행' 운영 가족과 체험 통해 다양한 불교 미술품과 삶·문화 이해

부산시립박물관은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금·토 야간에 초·중·고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미얀마 불교미술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형 다문화수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족들끼리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얀마의 다양한 불교 미술품들을 미얀마인들의 일상과 연계하여 관람객들이 좀 더 폭넓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국제전 '미얀마의 불교미술'에 전시된 유물을 중심으로 제작된 활동책과 체험재료가 담긴 '패밀리 뮤지엄키트'를 제공하고, 직접 불교 미술품들을 제작해본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 스며든 미얀마의 불교 문화와 유물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얀마인들의 삶과 문화를 접해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부산박물관은 이번 교육을 위해 부산문화재단·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왔다.

이를 통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과 더 나아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당 가족 10팀(가족당 최대 4명)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가족 단위로만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1회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1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부산시립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s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12월 7일은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조하거나 전화(☎ 051-610-7184)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최만식 기자



## 여주시,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 뮤지컬로 만난다



뮤지컬 '세종, 1446' 여주 특별 공연  
강렬한 군무로 감동과 볼거리 제공해

여주시가 주최하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세종, 1446>이 오는 12월 6일, 7일 양일간 세종국악당에서 여주시민들을 만난다.

뮤지컬 <세종, 1446>은 2017년 10월 세종국악당에서 트리아아웃 버전을 선보인 후, 지난해 중국장 사이즈의 커진 규모와 짜임새 있는 스토리, 화려한 캐스팅으로 서울 국립중앙박

물관 극장용에서 전막공연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올해는 세트와 양상불을 보강하고 새롭게 편곡해 더욱 높아진 완성도로 10월 3일부터 극장용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12월 1일, 서울 공연 종료 후 여주시민들을 위해 세종국악당에서 특별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 회차 기립박수를 받으며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세종, 1446>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나열하기보다 총령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글 창제 당시 세종의 고

뇌와 마음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았다. 각박한 현실에 지친 관객들에게 감동 그 이상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300여명의 화려한 의상과 강렬한 군무,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중독성 강한 넘버는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작품이 될 것이다.

또한, 관객들은 극장용에서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를 만날 수 있다. 영릉을 포함한 여주여행 코스를 담은 여주여행 지도와 여주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 주말에는 이벤트를 통해 여주 쌀, 여주 고구마도 선물로 증정한다.

한편, 외국인 관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세종, 1446>은 지난 11월 14~15일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진행된 공연 역시 큰 감동을 안기며, 성황리에 마친바 있다.

여주시민이라면 꼭 봐야할 뮤지컬 <세종, 1446>을 여주시민은 60% 할인된 가격으로 서울공연과 여주 특별 공연 모두를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yjcf.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여주/남시현 기자

## 강진군, 강진청자 변화를 추구하다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오는 6일 오후 3시, 강진군 아트홀에서 '강진청자, 변화를 추구하다'라는 주제로 2019 민·관 협업 청자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고려청자박물관과 강진지역 민간요들이 협업 개발한 청자 27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간요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고려청자박물관 관해 전문성을 더한 다양한 청자 제품과 디자인 업체 용역으로 개발한 특화디자인 제품 및 경량청자 등 관요에서 개발한 작품도 선보인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인 '헬스케어도자명품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제작중인 고려청자연구소의 헬스케어 기능성 청자 6종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고려청자박물관과 강진지역 민간요가 2019년 한 해 동안 협업해 개발한 청자신제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참관을 부탁드린다"며 "현대적 디자인에 맞추어 강진청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효관 기자

## 해남군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뮤지컬

오는 1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공룡송 등 관객 참여형 공연 펼쳐

전남 해남군이 2020년 해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어린이 뮤지컬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공연을 갖는다.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는 EBS 인기 애니메이션 고고다이노 캐릭터를 활용한 가족 뮤지컬로 하늘과 바다, 숲속을 배경으로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내용은 생명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지구 어린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르르 행성으로 모험을 떠난 다이노 탐험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고고다이노 캐릭터 '렉스'와 '핑'은 2020 해남방문의 해를 알리는 해남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서 어린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활약하고 있다.

공연은 14일 오후 2시와 4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회 열린다.

입장권은 12월 5일 오전 8시 40분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예매한다. 관람료는 1인 5,000원으로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나, 별도의 좌석이 배정되는 않는다. 또한 공연 당일 예매권 취소, 변경, 환불 등은 불가하다.

군은 공연장 외부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유아용 쿠션 비치 등 편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과 관련된 문의는 해남군청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해남/강양호 기자

## 가족 친화 광명시 만들기, 가족사진전 열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 모습 통해  
저출산 극복위한 가족사진 80여 작품

경기 광명시는 지난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을 개최했다.

가족사진전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저 출산을 극복하고자 마련됐으며 80여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시는 지난 9월 사진전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광명시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협조로 시민체육관 잔디광장과 안터 생태공원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촬영에 참가한 한 시민은 "9명이 되는 대가족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즐겁게 촬영했으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참가하고 싶다. 행복한 우리가족의 사진을 보고 전시회에 온 시민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번 전시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주시길 바란다."

가족사진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광명을 조성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사장: 김영근 / 편집국장: 정재두

서울본사: (우 086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경기본사: (우 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광명동) 2층 201호

대표전화: 1899-9659    2009년 4월 20일 창간

편집국: 02-2612-2959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 가50079

이메일: ekwk44@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sujin004344@hanmail.net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좋은사람들의  
평화도시

Hi 연천

DMZ 청정 연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천군수가 인증**

명품 브랜드로서  
**품질의 우수성 보증**

북쪽의 깨끗한 물과 남쪽의 비옥한 토지에서 정성들여 생산된  
**청정지역 우수 농/특산물**



## 독도, 일본주장 왜 허위인가? II

#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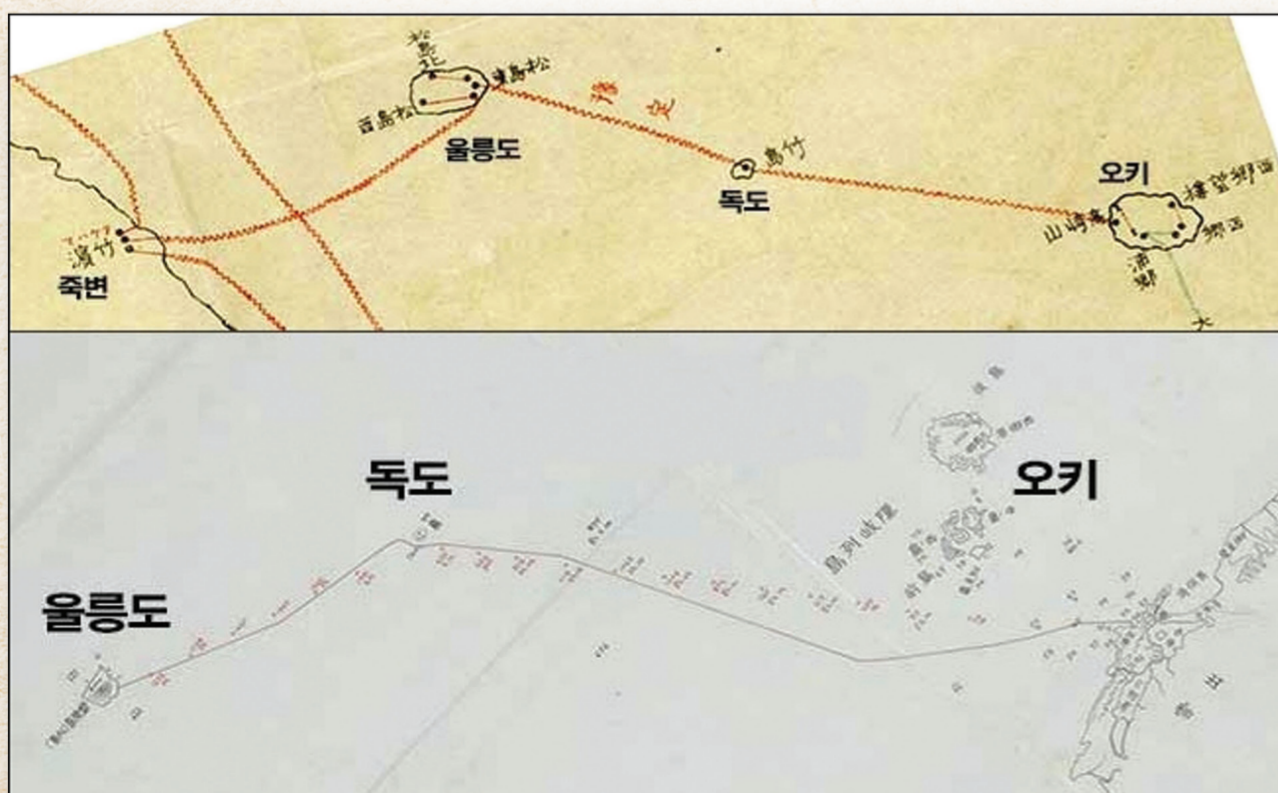
## 독도가 일본 침략

### 첫 희생물이 된 경위는 이렇다



독도 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망루는 현 독도경비대 막사, 감시소는 현 독도 등대자리



해저전선 부설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다.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7월 25일에 망루 공사를 시작해 8월 19일부터 망루를 가동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키(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공사를 추진했으며, 독도에는 관측병 등 4명의 군인이 체류했다. 시마네현은 망루 설치 과정에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를 앞세워 독도를 무단 편입했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 종전 후 10월 24일 철수했으며,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